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강화

검찰이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적극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대처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삼진아웃제는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징식 기소한다는 원칙 하에,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내용이다.

그 대상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거나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1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또 두번째 범행이라도 처음 보다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건도 기준과 달리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입건했으나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은 구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 같은 전력도 구속이나 징식 기소에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구형기준도 강화한다.

공소권 없음 또는 다른 사건 수사 중 데이트 폭력의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서 구형 시 기중해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 기준인지도 발굴해 신규 기준을 정립했다.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실현 가능하거나 약점을 이용한 데이트 폭력 사범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기중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데이트 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국민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지난 2014년 6675명에서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검도 법무부와 협의해 데이트 폭력의 특성에 맞춰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조사 결과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가 대다수 여성(91.7%)이며, 전·현직 여자친구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 강화시행 3회이상 데이트 폭력시 기소·적극구속 구형 기준도 강화...보복범죄 방지 지원

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단순 폭행이나 협박에서 상해나 살인 등 중대범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는 분석이다. 검찰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복범죄 방지에도 힘

뉴스스



비내리는 전주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1일 전북 전주시 전역에도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폭우에 우산을 쓰고 길을 지나고 있다.

하반기 뇌혈관 MRI·아동 충치치료 건보 적용 ↑

을 하반기부터 환자가 전액 내야 했던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비와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데진' 충치 치료비가 줄어들

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011년(5.9%) 이후 가장 인상폭이 큰 3.49% 오른 6.40%로 책정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을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뇌·혈관 MRI, 11월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12월 소장·대장 등 하복부 초음파 및 6세 이하 구순 비교정술·치아교정 등 순서로 올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발표하면서 횡수·개수를 제한하는 대표 기준비급여 항목인 MRI와 초음파 검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우선 MRI 검사는 9월 뇌·혈관을 시작으로 내년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질환, 2020년 척추질

환, 2021년 근골격계질환 순으로 급여화한다. 지금까지는 암·뇌·혈관 질환 등의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이후부터는 촬영 때마다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4월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는 12월 소장·대장 등 하복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어 2019년 여성·비뇨생식기, 2020년 심장·흉부, 2021년 근골격·두경부·혈관 등으로 보장성 강화대책이 추진된다.

올해 11~12월엔 어린이 치과 진료 때도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다. 현재 충치(치아우식증) 치료를 받을 때는 충전제 중 '아말감'을 이용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치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2012년 국민건강실태조사를 보면 아말감 처치율은 27.1%에 그친 가운데 레진 등 심미성 충전제로 사용률이 82.2%에 달했다.

이처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 치료비가 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인

닛에 환자 부담이 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서울·경기 등 네의원 682곳을 대상으로 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 치아당 복합레진 충치치료비는 최저 1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10배 차이가 났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책정하는 비용이 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적용 시 앞으로 이말감처럼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은 12월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내년부터 횡수·개수를 제한하는 기준비급여와 나머지 등재비급여를 순차적으로 급여화하고 희귀질환자 등이 거액의 약값에 경제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본인부담률을 30~80%로 차등 적용한다.

기준비급여는 내년 척추·근골격계, 재활, 내과 질환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용증(치료범위) 제한 등을 없애 2020년까지 급여화한다.

뉴스스

태국 동굴 실종자 수색에 미네이비실 투입

태국 동굴에서 실종된 13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 잠수대원들까지 투입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 네이비실 잠수대원들이 하루 전부터 태국 치앙라이주에 위치한 '탐 루엥 낭 논' 동굴에 투입됐다. 이들은 지난 29일 오후 동굴 안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11~16세 유소년 축구팀 소속 소년 12명과 25세 축구 코치 1명을 찾기 위해 동굴 안 깊숙히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포스트는 13명이 실종된 지 2주차로 들어섰지만, 수색 현장에서는 30일 비가 줄어들고 동굴내 물을 빼내는 작업이 진전을 이루면서 희망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치앙라이 주지사는 방콕포스트 등과의 인터뷰에서 동굴 내 고인 물인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진흙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여러 방향에서 통로를 찾는 작업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 네이비 실 대원들이 동굴 안으로 깊숙히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매 25m 마다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산소탱크를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비 실 잠수대원들은 현재 '파타야 비치'란 별명으로 불리는 동굴 공간 근처까지 접근한 상태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만약 13명이 살아있다면 이 곳에 대피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도 잠수대원들이 이 지점까지 접근했지만, 갑자기 물이 불어내면서 후퇴한 적이 있다고 방콕포스트는 지적했다.

이번 수색작업에는 미국 네이비 실 이외에 호주, 중국, 일본 등 각국의 동굴 수색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미후난성서 버스-트럭 정면충돌...18명 사망

중국 남동부 후난(湖南)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트럭이 정면충돌해 18명이 사망했다.

6월 30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후난성 헝양(衡陽)의 고속도로에서 대형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18명이 숨지고, 부상자 14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언론은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에 따른 졸음운전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버스회사는 올해에도 운전기사의 과로 근무에 대해 경찰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고속도로 정비가 진전되고 있지만, 동시에 운전기사의 과로에 따른 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매년 26만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인도네시아 침몰 여객선 수심 420m서 발견

164명의 실종자를 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토바 호수에서 침몰한 여객선이 수심 420m 지점에서 발견됐다고 인도네시아 당국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수색당국은 지난달 28일 밤 무인잠수정을 이용해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있는 여객선 'KM시나르 방운' 호 선체를 발견했다.

무인잠수정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는 다수의 시신과 오토바이들이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수색당국은 "수심 455m 지점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시신과 헬멧, 신발 등 승객들의 소지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선체는 수심 420m 지점에서 발견됐지만, 시신 10여구와 배에 적재됐던 오토바이들은 수심 455m 지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수심이 깊어 수온이 차갑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신체 인양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호수 수심이 깊어 마땅한 인양 장비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이 여객선은 지난달 18일 190여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20여분 만에 전복돼 가라앉았다.

이 여객선은 정원이 43명에 불과한 나무배지만 당시 배에는 이보다 5배 많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실 수대의 오토바이도 적재돼 있었다.

뉴스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